

자랑스러운 小白山

易 齋

진눈개비가 뿌리던 月出山の 바위산에서 손이 언 것이 며칠전 같이 생각되는데 나는 小白山嶺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떠나야 했다.

6월 24일 아침, 사진기 때문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청량리역에서 국립공원협회 呂運局長님 그리고 大韓山岳聯盟의 鄭之秀理事님을 만나서 그 흔한 週刊誌 같은 것 하나 사지않고 그냥 中央線 깨끗한 좌석을 가려서 자리 잡았다.

주변에 펼쳐지는 나무의 푸름은 성숙을 향해서 다름질 치고 있었는데 밤나무의 흰꽃들이 유난히도 푸름에 어울렸다.

6월의 온도는 나를 半覺半睡로 몰아넣었지만 푸름의 城은 때때로 나를 놀라게 한다. 낮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한 것을 느끼고 있는 나의 뇌리에는 그래도 무언가 생각을 깊은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다. 너희들 잎이 서로 마주나서 지금 훈풍에 장단을 맞추어 춤에 도취되고 노래하고 속삭이고 있다만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미리 생각 못하는 너희들이 퍽 어리석게 여겨진다.

푸른 것이 깨어져서 노랑과 빨강으로 물들이게 될 때에는 너희

들 형제자매는 뽀뽀이 흠어져서 서로 소식도 전할 수 없게 될 그것을 지금 왜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말이다. 한나무 한가지의 거의 한곳에 달려 서로 마주보며 춤추고 있는 너희 푸른잎이 없을 수 없는 無常의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앓겠다는 말이다. 어느 때엔가는 모든 생물은 스스로의 위치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서운하게 생각되는 이 중앙산의 차창가이다. 나도 훗날 떨어지겠지만 나보다 너희들이 먼저 떨어져 가리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지금 나의 상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역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색한 상황으로 해석할 것은 못되었다. 환영받고 환영하고 하는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小白山脈의 連峯을 등지고 있는 喜方寺의 뜰에는 두포기의 朱木이 마주서서 자라고 있었다. 이 절은 新羅 善德女王때 創建된 것이지만 이것이 몇번인가 불에 타야만 역사가 흘러갈 수 있었다고 설명해 준다.

마시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약

수라지만 당장의 갈증 때문에도 그 약수를 많이 마셔야 했다. 小白山脈 중 가장 높은 봉우리를 小白山 또는 毘盧峰(1,439m)으로 말하는데 비로봉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喜方瀑布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다시 흘러 喜方溪谷의 綠陰의 동굴을 만들고 있다. 싱싱한 나무의 향기가 물안개 속에 녹아들고 그 물안개가 나의 肺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연기로 녹슨 肺가 말하자면 새로운 것으로 개조되고 있는 이 순간이다. 그래서 이곳 溪谷의 綠陰을 모두 찾게 되는 것이다. 綠陰이 없는 溪流는 石具요 溪流가 없는 綠陰은 未完成品이다. 느티나무, 단풍나무, 잣나무의 줄기에 손을 얹어 보면서 順興面의 紹修書院으로 갔다. 1542年 豐基郡守 周世鵬先生이 創建한 것으로 1550年 明宗 5年에 紹修書院이라는 賜額을 받으므로 賜額書院의 처음이 되었다.

부근에 宿水寺址 幢竿支柱가 있는 것을 보면 李朝時代의 抑佛政策을 생각나게 한다. 이 書院을 감도는 竹溪는 小白山에서 起源하는 것인데 九曲을 거쳐 내려오고 있다. 물소리가 溪床의 큰 岩塊를 짚고 있지만 竹溪의 물로



구름도 쉬어넘는 小白山 稜線

선 그 바위가 쉽게 마모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물의 노래는 몇 천을 넘겼다.

옆으로 퍼진 소나무 樹冠의 푸름에 알맞게 굵은 줄기는 안개속에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 지금은 詩文을 읊는 律調가 뚝 끊기고 말았지만 가지 사이를 지나가는 단조로운 바람의 音律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이곳의 名木들이다.

儒先들이 공부하던 강당 안의 賜額을 보고 그 以前부터 生을 營為하고 있었던 은행나무의 氣慨를 두려워 하면서 毘盧寺로 향했다.

비로사의 뜰에는 세그루의 큰 분비나무가 서 있었고 잣나무들이 많았는데 잣송이는 거의 모두가 청살매의 먹이로 되고 있다한다. 나는 그 분들에게 청살매로

부터 잣을 얻어 먹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부탁해놓고 왔다.

浮石寺로 가서는 1377년에 세워진 祖師堂의 禪扉花(골담초)를 보고 無量壽殿 안에 奉安되어 있는 鍍金製의 如來佛像의 坐位를 이야기 하면서 日本 사람들의 이에 대한 탐욕의 行狀에까지 이야기가 이어졌다.

6月 25日 竹嶺에서 石刻으로 된 두 個의 竹幹을 보고 第二蓮花峯으로 갔다. 海拔高 1,357m. 이곳에 天體觀測所가 있었다. 星座를 確認하는 큰 망원경이 自由自在로 돌면서 天體의 별의 座標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 하늘의 별들은 모두 소백산위로 쏟아지고 있다.

竹嶺재의 길을 개척했다는 竹竹이란 사람을 상징하는 石刻竹幹 한 쌍을 찾아본 것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었을 일이 아니었겠는가.

第二蓮花峯(1,405m)으로 오른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함박꽃나무의 흰꽃이다. 불두화(백당나무), 개쉬땅나무, 왕털마가목, 신갈나무, 철쭉, 딱총나무 그리고 풀밭이 나타난다. 바람 때문에 생각되지만 나무들의 키가 낮다. 우리는 비로봉(1,439m)에 이르렀다. 이것이 小白山脈 중의 최고봉으로서 지도에는 小白山으로 표현되고 있다. 강원도 五台山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로봉으로 말한다.

비로봉 부근에는 朱木의 넓은 群集이 있고 文化財로서 보호되고 있어서 둘레에 높은 철책이 만들어져 있다. 전에는 이곳 주목의 묘목이 盜掘되어 큰 도시의 정원수로 나간 일이 있다고 한다.

얇은 안개가 점심을 먹고 있는 비로봉을 몇번인가 스쳐가곤 했는데 이러한 습한 공기 때문에 여기에 에텔바이스가 많은 것인가.

한 차례의 안개가 고개를 넘으면 다음번의 안개의 무더기가 산허리를 기어 올라와서 비로봉을 씻겨주고서는 다시 저쪽으로 떠나 버린다. 바람을 따라가곤 하지만 안개의 덩어리도 갈곳이 있어서 이 길을 지나가게 틀립없다. 누군가 안개에는 뜻이 없는 거라고 말할 것인가.

비로봉 頂上 부근에는 에텔바이스의 모임도 있었지만 함박꽃나무의 群集이 있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매우 신기했다. 사진에 담은 것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주목밭에 거의 이웃해서 이러한 分棲現象이 있다는 건 정말 自然의 정밀한 조절의 기능 그것에 탐복할 뿐이다.

이러한 群集도 文化財나 天然記念物로 해서 보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가는곳 길가마다 모데미풀과 질경이가 많다. 보랏색 붓순(Iris)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도 이곳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비로봉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國望峯으로 갔었다. 비바람에 頂上의 흙은 아래로 짊여 내려갔고 큰 岩塊들이 모여서 국망봉의 봉우리를 만들고 있다. 광막하게 퍼져있는 철쭉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을 만들고 있다. 국망봉 頂上 부근에는 몇 그루의 분비나무가 자라고 있다. 백당나무의 흰꽃잎이 오솔길에 수북히 깔



소백산에 오른 필자와 동행인들

려서 나는 꽃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진달래의 꽃잎을 한아름 따다가 임가는 길을 단장 하리라는 소원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일뿐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백당, 흰꽃잎의 순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소백산이 이처럼 나를 환대해 준다는 건 소백산으로서의 이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가.

소백산맥의 철쭉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의 것이 없을 정도로 넓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이곳 철쭉이 피게 되면 小白山은 烽火山으로 되고 만다. 두견새의 애끓는 歸蜀途의 피가 토해져서 철쭉이 되었다지만 그들이 이곳 소백산 위로 몰려오게 된 이유는 눈을 감고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

비로봉에서 草庵寺쪽으로 내려가는 길의 경사는 너무 가파랐다. 울고 싶은 험한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한 原始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

고로쇠단풍나무, 싸리나무, 생강나무, 명강목, 민둥인가목, 고추나무, 물푸레나무, 오갈피, 작살나무, 박달나무, 왕머루, 참개

암나무 등이 많았고 낮은 곳에 이르자 큰 소나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竹溪一曲에서 맑은 물에 땀을 씻고 맥주 한잔을 들이킨다. 내일의 길이 또 바쁜편이다.

26일 아침. 竹嶺을 다시 넘어서 古藪洞窟, 泉洞洞窟, 그리고 盧洞洞窟을 지나 救仁寺로 갔다. 天台宗本山寺라고 하는데 펍 현대적 감각의 농도가 짙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오게 된다는 말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본다.

내가 소백산을 찾지 않았더라면 큰일날뻔 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정도로 이 산은 위대한 원시의 성품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소백산을 가졌기 때문에 두 어깨에 더 힘을 주면서 살아 갈 수 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지난날처럼 소백산에 도깨비, 요망스러운 귀신, 호랑이, 산신령 같은 것이 많았으면 했다. 소위 과학이란 지렛대에 걸려서 이러한 신비가 쫓겨나고 있는 것을 펍 서운하게 여긴다는 원시를 갈구하는 나의 목마름 때문이다.